

윤회를 벗어나는 법

불교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교에서의 윤회란 생명이 있는 것은 여섯 가지의 세상에 번갈아 태어나고 죽어 간다는 것으로 이를 육도윤회(六道輪廻)라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육도 중 첫째는 지옥도(地獄道)로서 가장 고통이 심한 세상이다. 지옥에 태어난 이들은 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다. 둘째는 아귀도(餓鬼道)이다. 지옥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을 덜 받으나 반면에 굶주림의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 셋째는 축생도(畜生道)로서, 네 발 달린 짐승을 비롯하여 새·고기·벌레·뱀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넷째는 아수라도(阿修羅道)이다. 노여움이 가득찬 세상으로서, 남의 잘못을 철저히 따지고 들추고 규탄하는 사람이 이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다섯째는 인간이 사는 인도(人道)이고, 여섯째는 행복이 두루 갖추어진 하늘 세계의 천도(天道)이다. 곧 인간은 현세에서 저지른 업에 따라 죽은 뒤에 다시 여섯 세계 중의 한 곳에서 내세를 누리며, 다시 그 내세에 사는 동안 저지른 업에 따라 내세에 태어나는 윤회를 계속하는 것이다. 네이비 백과사전

성철스님은 윤회를 벗어났을까

현대 불교의 고승이었던 성철(性徹, 1912~1993) 스님. 그는 입산 후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참선수행만 정진하여 깨달았다고 알려졌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총무원장의 일탈로 무너진 조계종의 부흥을 위해 중정 제의를 수락하였다. 생



성철스님이 8년간 눕지 않고 앉아서 좌선을 했다는 장좌불와(長坐不臥)

불(生佛)로 추앙받던 성철 스님이 종정이 되자 불자(佛子)들뿐만 아니라 세간에서도 그의 언행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가 종정에 추대된 후 산속을 떠나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1981년 그는 몸뚱이리 대신 "보이는 만물은 관음(觀音)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妙音)이라. 이 외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대중(示會大眾)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취임 법어만 세상으로 내려보냈다. 8년간 눕지 않고 앉아서 좌선을 했다는 장좌불와(長坐不臥)로 유명했던 성철의 법어(法語)는 떨어지는 순간 마스크를 타며 그 뜻이 무엇인가 궁금증을 일으켰었다. 그는 지금 어디 있는가?

유명하다. 청화스님은 참선만 중요시하는 불교계에 염불선을 대중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염불선은 자력으로 깨닫는 것만 강조하는 참선과 달리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타력을 더하는 수행법이다.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

성철스님이나 청화스님이나 범부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행자들이 분명하며, 더욱이 불자들 중에는 이에 버금가는 수행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육도윤회의 사슬을 끊었을까? 그들은 불변상주(不變常住)하는 법신(法身)을 증득했을까? 법신이란 진리를 구현한 진리체이자 영생체를 말한다. 견성성불하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며, 법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성철은 스스로 말하기를 열반은 죽는 게 아니고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했다. 열반의 4가지 덕(德)을 상락아정(常樂我淨)

이라고 한다. 항상하며 즐겁고 청정한 진아(眞我)를 말한다. 이는 한마디로 법신불의 경지이다. 그렇다면 성철이나 청화는 입적이라고 말해야 하리라. 청화스님은 입적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인터넷을 뒤져봐도 잘 모르겠다. 성철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生平傲狂男女群 彌天罪業過須彌 瀟灑阿真恨萬端 一輪吐紅掛碧山"라고 읊었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니 죄업이 하늘을 덮고 수미산보다 크도다. 산 채로 지옥에 떨어져 한이 만 갈래라.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 있네" 성철은 기자가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하자 대뜸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만 한다"고도 했다. 성철이나 청화가 참선과 염불선을 강조하며 수행했지만 그들이 성불하지 못했다면 과연 참선이나 염불선 등의 방법으로 견성성불할 수 있을까의 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윤회를 벗어나는 법: 반대생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반대생활을 하여야 한다. 반대생활이란 내가 시키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나라는 의식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라는 의식을 점점 더 키워주게 되므로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미운 사람을 진실로 좋아하고, 일하기 싫으면 더욱 일을 하여야 한다. 조희성님은 반대생활을 완성하여 나를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고 성불하셨다. 성불하게 되면 생로병사를 초월하여 불사체로 존재한다. 지금도 분신으로 우주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계신다.*

기억재생 녹화기

인간이란 존재에 대하여 나를 자기주장을 멋지게 편 사람들이 있었다. 단세포 생물이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신이란 존재가 손재주를 부려서 인간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먼 우주의 고등 생명체가 지구로 이주해 왔다는 사람도 있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글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니다. 이제껏 있었던 기존의 주의주장을 전부 의심해보자는 거다. 특히, 검증으로 사실(fact)을 찾아가는 과학적 방법이 더욱 발달하고 보면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거짓말 탐지기가 처음 출현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고 지금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나 조금 더 고차원적 기계가 만들어지고 보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가령, 주사기와 같은 침으로 혈관에 꽂아서 TV 스크린으로 연결한 다음 인간이 기억하는 모든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기계가 만들어진다면 거짓말쟁이와 허황된 이야기들은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섹스 스캔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속이고 단상에 올라 뽐의 혀로 사람들을 농락하는 목사들이 제거될 것이고 사람을 죽이고서도 오리발 내미는 살인자들도 단죄될 것이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같아서 눈동자가 닿는 곳이라면 전부 녹화될 것

이고 사람의 귀는 모든 소리를 담아서 머릿속에, 몸속에 전부 녹음되어 저장될 것이므로 사건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들려줄 것이므로.

그리고 그 놀라운 기계와 더불어 유전공학이 합세하여 아버지나 할아버지 혹은 증조부나 고조부 그리고 그 이상의 먼 윗대조상들이 보고 들었던 장면까지 끄집어내는 기술이 출현하면 인간의 시원(始元)조차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지 모르면서 짧디 짧은 생을 살다가 가는 불쌍한 우리가 드디어 그 한을 풀게 되리라. 그리고 말쑥 많은 영터리 종교들도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질 것이다. 또한 기록미비와 증거부족으로 시비가 많았던 옛일(古事)들이 세밀하게 그 진실을 내비치니 영터리 역사도 교과서에서 지워지

리라.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될 것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코끼리를 대동하고 알프스 산을 진짜로 넘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로마제국의 병정(兵丁) 판텔라가 마리아를 겁탈하여 사생아 예수(JESUS)가 출생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공자(孔子)가 한(韓)민족의 조상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혼자 연구해서 내놓은 작품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영터리 종교에서 출발한 영터리 목사로서 인체 사회가 분열되고 코로나 세균의 방역에 예를 먹으며 일등국가로의 진입에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억재생 녹화기의 출현이 은근히 고대된다.*

James Ahn / 호주 시드니 제단 책임승사 dap21b@gmail.com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92> "마귀가 모방력으로 아담과 해와를 점령하였다"

6000년 전에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장면이 아니고서는 마귀가 아담과 해와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 것을 보고 마귀가 들린 솔궤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같이 뱀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을 꺾으려는 마귀가 모방력으로 아담과 해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니 아담과 해와는 자기

와 똑같은 모습에 아무 경계심도 없이 따귀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마귀 영에게 점령을 당하여 따귀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까닭에 추상적으로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고 잘못 기록해 놓은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육부六腑의 작용과 기능의 이해-쓸개(담낭)

옛말에 '쓸개 빠진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나 야무를 잘하는 사람 등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틀리지만은 않다는 것이 한의학에서 보는 쓸개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담(쓸개)이 결단성을 주관한다고 한의학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쓸개(담낭)는 간의 우엽과 좌엽 사이의 오목에 붙어있으며 7~10cm 가량의 길쭉한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고 30~50ml 정도의 담즙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담낭은 간에서 분비한 담즙을 농축, 저장하였다가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면 십이지장내로 담즙을 분비하여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담즙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장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인체의 혈관에 흡수돼 담즙 색깔이 피부까지 배어 나와, 소위 황달이라고 하는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담즙 속에는 각종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감염 질환도 주의해야 합니다. '쓸개(담낭)'는 5장 6부 중 소화기 계통의 하나로 담즙(분물의 소화액)이 들어 있는 담즙 보관 주머니로서 간세포에서 매일 900ml씩 만들어진 담즙을 농축 저장하였다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십이지장으로 담즙을 분비하여 소화흡수를 돕는 장기인데, 지방을 소화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설해 소화흡수를 돕는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가 뭉쳐서 단단해진 것이 '담석'입니다.

담낭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지나치게 많은 콜레스테롤, 담즙산염, 빌리루빈을

포함하면 단단하게 되어 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담석의 대부분이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황녹색이며, 이러한 담석이 담낭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간에서부터 소장까지 이어지는 간관, 담낭관, 총담관을 막게되면 담즙의 흐름이 정체되어 질환이 발생합니다. 담석에 의해 막힌 부분에 따라 장기의 손상이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열이나 황달,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담낭에 담석이 발생하면 담낭담석의 경우 복강경으로 담낭절제술을 실시하고, 관에 담석이 위치한 경우 내시경적으로 제거하거나 약물로 용해시키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한의학에서 쓸개는 간과 함께 인체의 근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체의 근육에 이상이 오면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으로는 간과 쓸개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간이나 쓸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처방을 냅니다.

이렇게 담(쓸개)은 소화기관 중에 하나만이 아니고 인체의 전반적인 건강의 척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장부이기에 특히, 한의학에서는 기항지부라고 해서 기이한 일을 하는 장부로 특별히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이 육류를 즐기는 경향이 심한데, 이는 상당히 쓸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쓸개의 부담뿐만 아니라 육류를 즐기는 식습관 때문에도 소화불량 담석증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자칫 쓸개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으니 조심합니다.*

김주호 기자

본부제단 8월 성적 1등 5지역 개인 1등 이승우 승사



5지역 부회장 강춘희 권사가 상을 받고 있다

- 지회장: 신순이)
- 2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3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구역 1등: 21 구역(구역장: 안명숙) 2등: 53 구역(구역장: 석선자) 3등: 47 구역(구역장: 이승우)

본부제단(윤봉수 신도회장)은 9월 8일 구역장회의를 열고 본부제단 8월 성적 우수자 시상식을 거행했다.

- *개인 1등: 이승우 승사 2등: 신순이 권사, 조건우 승사 3등: 김건곤, 김정순 승사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구세주 예배 말씀집

2000년 8-9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신간서적 1 승리제단 직구용

- ▶ 2000. 8월 출옥 후 매일 설교 말씀 날짜별로 수록
-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의 말씀
-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생 결코 얻을 수 없어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승리신문 제작 |